

“서울대 404~405점...한국에너지공대 400점”

광주교육청, 정시 대학별 지원 점수 분석
 전남대 의예과 414점
 조선대 의예과 410점
 광주교육대 365점
 17일 실재점 결과 설명회

지난 달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2022학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재점 결과, 광주교육대의 지원가능 점수는 365점 안팎,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지원가능 점수는 400점 안팎, 올해 신설된 한국에너지공과대는 400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16일 지난 달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수능 실재점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시 교육청 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은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실재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됐다.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131점, 수학 137점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지난 수능(12.66%)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6.25%로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

과목별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의 경우 국어 최고점은 149점으로 지난 수능 144점에 비해 5점 상승했다. 특히 올해 최고점이 최근 10년 동안 실시된 수능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상당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학 미적분·기하 최고점은 147점, 확률과통계 최고점은 144점으로 선택과목간 최고점 차이는 3점으로 나타났다.

실재점 분석 결과에 따른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도 예측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404점·자연계열 405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391점·자연계열 396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2점, 국어교육과 360점, 행정학과 359점, 경영학부 356점, 정치외교학과 349점, 국어국문학과 347점 안팎이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414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과) 409점, 약학부 406점, 수의예과 399점, 전기공학과 388점, 간호학과 366점, 수학과 365점이다.

조선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경찰행정학과 344점, 영어교육과 338점, 국어교육과 331점, 자연계열은 의예과 410점, 치의예과 407점, 약학과 405점, 간호학과 347점, 수학교육과 335점 안팎으로 판단했다.

이번 분석자료와 배치기준 점수는 2022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의한 것이다. 수시 이월인원 발표 때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

배치기준 점수는 표준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인만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국·수·탐 표준점수 600점 기준인만큼 영어 등급점수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리 정도를 판단한 뒤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오후 4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실재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20-24일 5일 동안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진학상담교사들로 구성된 정시모집 대비 1대1 대면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비정규직 상담 1위 '임금' 광주시 비정규직센터 1년 집계 '4대 보험'·'휴가'·'징계' 순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간 모두 975건의 노동 상담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한 상담으로 1건에 여러 분야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 분야별로 집계하면 모두 1303회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금에 대한 상담이 449회로 전체의 3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퇴직금(139회) 상담과 연차수당(87회), 임금체불(48회) 등의 순이다.

다만 과거 임금 분야 상담이 45% 내외를 기록했던 것보다 10%가량 줄어든다고 다른 분야 상담이 조금씩 늘어났다.

임금 문제 다음으로 4대 보험 관련 상담이 10.9%로 많았고 휴가 관련 10.1%, 징계·해고 관련 9.4%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뿌연 하늘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오후 광주시 남구 사직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도심이 미세먼지로 둘러싸여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북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 영구임대 복합시설 건립 100억 투입

광주 북구가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포함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기초 생활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소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이번 선정에 따라 체육, 문화, 돌봄의 복합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 오차동 영구임대단지 내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2673㎡)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한다. 특히 다목적체육관, 통합돌봄센터, 공동작업

장 등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포함된다.

북구는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체육·문화·복지 욕구를 만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오차동 권역의 체육, 문화, 돌봄 등 생활 인프라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오차동을 비롯한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등 구도심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지난 5월 LH와 사업부지 무상사용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마지막 '판봉띠 집회'

18일...오늘부터 사진전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광주시민사회 단체들의 모임인 '미얀마 광주연대'가 18일 마지막 '판봉띠' 집회를 연다.

16일 미얀마광주연대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마지막 판봉띠 집회가 진행된다. 판봉띠 집회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악귀같은 군부를 몰아내고자 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대표적인 저항 방식이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3월부터 이 판봉띠를 정기적으로 열어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를 표해 왔다. 지난 5월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됐고, 7월

부터는 매월 1회 꾸준히 집회를 이어왔다. 일반시민 및 미얀마 청년 등 3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집회에 함께 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황정아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킹 대표는 “미얀마는 지금도 많은 청년,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맞서 저항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희생 역시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며 “판봉띠 집회는 마무리 하지만, 광주시민들이 미얀마를 잊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사진 전시회 '1980 광주 = 2021 미얀마 : 미얀마 민주항쟁 300일의 기록'이 17일부터 광주시 동구 메이홀 전시장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42주년 5·18기념행사위원회 정동년 상임행사위원장 선임

2022년 제42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으로 정동년(77)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선임됐다.

16일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 이사장을 내년도 상임행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정 이사장이 공법단체 설립과정에서 빛어낸 불협화음과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진상규명 활동, 그리고 5·18헌법전문수속 등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40년 이후의 5·18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겠다고 평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영태 전 전남대 학장, 광주시교육감 출마 선언

최영태 전 전남대학교 인문대 학장이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학장은 16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자와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저의 꿈은 광주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저하된 학력을 회복시키고 재능, 감성 교육도 중시하는 참 실력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여 명이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 전 학장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최 전 학장은 “대다수 광주 시민은 균형감을 잃

은 교육정책으로 우리 자녀들의 학력이 크게 저하된 점을 걱정하고 있고, 자유학년제와 혁신학교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전 학장은 ▲ 종합적인 안전 교육 시스템 구축 ▲ 학력 신장을 통한 실력 광주 조성 ▲ AI(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체제 구축 ▲ 광주형 민주시민교육 추진 ▲ 끼와 개성을 살리는 교육 ▲ 감성 교육 ▲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 광주교육통합추진단 설치 ▲ 교직원인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 ▲ '광주교육회의'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손해보험협회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